

간호에서의 윤리적 가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인격주의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홍석영(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0 간호란 무엇인가?

간호(看護)의 영어 표현인 ‘nursing’의 어원은 “양육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nutrix’와 “영양을 주다, 키우다, 자라게 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nutre’이다. 한자어 간호(看護)는 “보다, 지켜보다, 손을 이마에 얹고 바라보다”라는 뜻의 ‘간(看)’자와 “보호하다, 지키다, 돕다”라는 뜻의 ‘호(護)’자가 결합되어 있다.¹⁾ 결국 간호라는 말은 그 단어 속에 “보호하다, 영양을 주다, 기르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 언어에서 ‘간호’는 말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행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Nursing)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²⁾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의 뜻과 대한간호협회의 정의를 고려하면, 간호는 ‘건강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와 증진’과 관련한 (의료) 활동을 의미함을 할 수 있다.

0 간호에서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간호에서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간호사윤리선언’(2006년 제정, 2014년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간호사윤리선언>

- 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 이에 우리는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로 국민 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 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1) 정면숙 외 공저, 『간호학개론』(제2판), 2015. 서울: 현문사.

2)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definition.php, 인용일: 2018년 5월 9일.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심으로 지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선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윤리적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옹호’,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유지’, ‘최선의 간호’, ‘윤리적 판단과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 거부’,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존중과 상호 협력’ 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적 가치는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두 물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서양의 철학·윤리적 전통 중 인격주의(personalism)와 인성교육(charater education)의 논의를 활용하면서 간호에서 중시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그 윤리적 가치의 교육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0 인격주의란?

인간 존재를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는 ‘인격(人格)’이다. 일상 언어에서 우리는 누군가(개인이든 집단이든)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흔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다. 부정적 일상 언어인 “인격 모독”, 긍정적 일상 언어인 “인격적 대우”, “인격 존중” 등의 표현을 고려할 때 인격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인격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인간에 관해 숙고하는 철학·윤리학적 흐름을 인격주의³⁾라고 부른다. 그런데 인격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인격주의라고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 중에서 “인격이 내포하는 내용과 측면들을 상세하게 성찰하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인격이 드러내는 현상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숙고와 사유 형태를 인격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⁴⁾ 인격주의는 칸트의 의무론이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처럼 하나의 확고한 철학 체계이기보다는 하나의 ‘접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하여 어떤 학자는 인격주의를 “하나의 관념을 중심으로 모여 그들 고유의 관점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태도”⁵⁾로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인격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중심 관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 인격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확언”⁶⁾이다. 바로 이것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인격주의의 중심 관념이다.

인격주의는 그 사상의 연원을 보에티우스(Boethius, 약 480-524)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⁷⁾ 현대의 인격주의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어권에서는 르노비어, 블롱델, 마르셀(G. Marcel), 무니에(E.

3) 인격주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 1768-1834)이다. 그는 1799년에 “종교에 관하여”라는 강연에서 종교현상학을 기획하면서, 인격주의와 범신론을 구분하였다. “Personalismus”, in *Historisches Woeterbuch der Philosophie*, Band 7, Basel: Schwabe & Co. AG., 1989, p. 338.

4) 한스 루터, 안명옥 역, 『인격과 윤리』, 성바오로, 1993, p. 14.

5) André Ligneul, *Teilhard and Personalism*, trans. P. J. Oligny, OFM and M. D. Meilach, OFM, Glen Rock, 1968, p. 4

6) J. Hellman, *Emmanuel Mounier and the New Catholic Left, 1930-1950*, Univ. of Toronto, 1981, p. 4.

7) L. Palazzani, “Personalims and Bioethics”, *Ethics & Medicine*, Vol.10, No.1, 1994, p. 8.

Mounier), 란즈베르크 등의, 독일어권에서는 코헨, 셸러(M. Scheler), 부버(M. Buber), 구아르디니(R. Guardini), 슈페만(R. Spaemann) 등이 인격주의 사상을 전개하였다.⁸⁾ 인격주의 사상을 인간 생명과 관련한 실천적 문제와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전개한 인물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재임한 카롤 보이티와(Karol Wojtyla, 1920-2005)이다. 그는 현대 사회의 여러 위기 상황을 ‘죽음의 문화’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간 인격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생명의 문화’ 건설을 강조하였다.⁹⁾

로마 교황청 생명학술원장을 2005년부터 3년간 역임한 엘리오 스그레차(Elio Sgreccia, 1928년생) 추기경은 인격주의에 근거하여 생명윤리 논의를 펼치면서 다음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육체 생명 수호의 원리’, ‘자유와 책임의 원리’, ‘전체성의 원리[치료의 원리]’,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리’¹⁰⁾.

0 간호 윤리의 핵심 가치: 존중과 책임.

인격주의에서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간호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할 때,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간호 윤리의 맥락에서 환자에 대한 존중과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존중과 책임은 간호 윤리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간호는 환자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간호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간호사는 그 환자를 돌보는 행위자이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환자, 즉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인격주의는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인격주의 인간관을 잠시 살펴보자.¹¹⁾

가. 인간의 전체성(Gesamtheit, totality): 영혼-육체의 합일체

인격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실체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전체이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모여 인간 전체를 이루며,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갖는다.

인격주의는 육체와 영혼을 엄격히 분리하고 양자 중 어느 하나에 우위를 부여하는 인간관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과 데카르트는 몸과 영혼을 엄격히 분리하고 영혼에 우위를 부여하였다. 플라톤(기원전 약428-347)은 영혼과 몸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영혼에 의한 몸의 통제를 주장하였다. 그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자연은 영혼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어 지배하도록 하고 육체로 하여금 그 노예가 되어 섬기도록 해 놓았어.”¹²⁾라고 말한다. 플라톤의 영혼 우위의 이원론을 데카르트(1596-1650)가 계승한다. 그는 몸과 마음을 철저히 분리하고, 몸은 마음에 의해 조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인간을 전적으로 물질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8) 한스 루터, 안명옥 역, 인격과 윤리, 성바오로, 1993, p. 21. 독일, 프랑스, 폴란드, 미국 등의 현대 인격주의 흐름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로는 홍석영,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인격주의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과사상, 62호, 2008년 12월호를 참조.

9) 홍석영, “카롤 보이티와의 인간 이해와 도덕·윤리와 교육에의 함의”,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21집, 2010년 4월, pp. 109-122 참조.

10)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엘리오 스그레차, 정재우 역, 생명윤리의 이해 I, 가톨릭출판사, 2016, pp. 397-410 참조 바람.

11)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2006, pp. 125-146, 221-225 참조.

12) 플라톤, “파이돈”, 플라톤, 최명관 역, 플라톤의 대화편, 서울: 창, 2008, p. 156쪽.

들의 기본 주장은 ‘모든 것은 물질적으로 근거 지워지며, 정신조차도 물질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메트리(J. O. de La Mettrie, 1709-1751)는 그의 저서 『인간 기계』(*L'homme machine*, 1748)에서 인간은 고도로 조직된 물질이며, 전적으로 기계적 법칙에 종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생리학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정신이나 영혼과 사유도 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물리적 생명 현상의 수반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¹³⁾

플라톤과 데카르트가 영혼 우위를 주장하며 인간의 전체성을 보지 못했다면, 라메트리는 물질 우위를 주장하며 인간의 전체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혼 우위든 육체 우위든 관계없이, 이러한 이원론적 또는 환원론적 인간 이해는 인간을 두 개의 분리된 부분, 즉 물질적 부분과 정신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둘 중 어느 한 부분에 우위를 부여하고, 다른 한 부분을 무시한다. 그러나 인간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혼적인 인간의 현존재 체험에 모순된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합일체이다. 육체와 영혼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인간에게 속해 있으면서 인간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 인간 존재에게 있어 육체와 영혼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67-347)는 플라톤의 영혼 우위의 환원론을 극복하고, 인간 본질의 통일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실체적 결합’(unio substantialis)이며, ‘영혼은 육체의 형상’(anima forma corporis)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질료(material)와 형상(form)을 사물의 내재적 본질 원칙으로 보고, 인간의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이해하였다.¹⁴⁾ 다시 말해서 영혼이란 물질을 인간의 육체로 형성하고, 육체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고, 생명을 부여하고, 살아 있는 인간의 육체로까지 만들어 주고, 내적으로 형상을 만들어 주면서 본질을 규정하는 원칙이다. 물질은 잠재적(潛勢的)인 매개체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본질 형상[영혼]에 의한 규정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개별체에 이르는 개체화를 본질 현상으로 부여받는다.¹⁵⁾ 영혼의 형상에 의해 규정된 육체가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로서 현실 세계에 실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이해를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가 계승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개의 실체 즉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의 실체이며, 인간 안에서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들이 무엇을 느낄 때에, 느끼는 것은 인간 전체이지, 영혼뿐이거나 육체만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이 무엇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영혼 없이는 또는 육체 없이는 이해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해하는 주체는 인간 전체인 것이다.

철학적 인간학의 비조이자 인격주의 사상가인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도 인간의 전체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 충동, 본능, 연상 기억, 실천 지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¹⁶⁾. 따라서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을 극대화해 환원론적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전체성에 어긋난다. 실천 지능만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듯이, 감각 충동만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 모두가 전체적으로 결합된 존재이다. 그는 인간의 전체성, 즉 마음과 몸의 통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3) 안네마리 피퍼, 진교훈·유지한 역, 『현대윤리학 입문』,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p. 286-289.

14) De Anima II, 1과 2, 412a-414b.

15) 에머리히 코레트 지음, 진교훈 옮김, 『철학적 인간학』, 서울: 종로서적, 1986: 22-23.

16) M. Scheler, 진교훈 역,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서울: 아카넷, 2001: 21-59.

생리적인 생명과정과 심적인 생명과정은 존재론적으로 엄밀하게 동일한 것이다. 양자는 단지 현상적으로만 상이할 뿐이다. 그러나 그 둘은 그 경과와 구조 법칙과 리듬에 있어서는 현상적으로도 엄밀하게 동일하다. 심리적 과정이든 생리적 과정이든 양자는 마찬가지로 비기계적이다. 양자는 모두 목적 지향적이며 전체성을 겨냥하여 조정되어 있다. ... 우리가 '생리학적'이라든가 '심리학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생명 과정의 두 측면에 불과하다. ... 모든 생명체는 최종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분자로부터 세포, 조직, 기관을 거쳐 유기체의 전체에 이른다. 17)

인격주의 사상을 펼친 독일의 신학자 구아르디니(Romano Guardini, 1885-1968)도 인간의 실체를 '육체와 영혼의 통일'(Leib-Seele-Einheit)로 설명한다. 그 자체로 있는 정신과 질료로부터 형성되어진 육체는 인간에게는 원래의 실재이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에 종속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다른 것 안으로 옮길 수 없다. 이들은 각각의 가치를 발휘하면서도 상호간에 관계하여 통일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을 단순한 육체나 혹은 단순한 정신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¹⁸⁾ 인간에게 현존하는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정신-육체이다.¹⁹⁾ 인간에 관한 환원론적 관점은 인간의 생동적인 통일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은 똑같이 생동적인 통일성의 두 측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육체와 영혼은 서로 구별되면서 동시에 통일을 형성한다.²⁰⁾

이와 같이 인간을 육체-영혼이 실체적으로 통일된 전체로 이해하는 인격주의의 인간관은 간호사에게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환자의 육체적 질병은 정신적 불편함을 동반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편함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이것의 실천은 그리 수월치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와 동시에 조화를 생각하게 된다.

나. 인간 육체 생명의 기본 가치

간호 윤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전체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간호 행위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행위이기때문에 인간의 육체 생명이 가지는 기본 가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육체 생명이 건강해야 정신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 정신 능력을 계발하여 발휘하고 싶어도 육체 생명이 없거나 또는 병약하다면, 정신 능력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일찍이 막스 셸러는 '정신을 활동하게 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오로지 생명만이 할 수 있다'²¹⁾고 갈파하고, 인간의 정신과 생명을 인간 전체의 관점에서 포괄하여 이해하였다. 그는 '생명과 정신은 서로 본질적으로 상이하면서도 이 두 원리는 인간에게서 서로 화합하고 있다'²²⁾고 이야기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적 인간학자인 펠트너도 '인간의 육체는 인격의 세계개방성을 실현하는

17) ibid.: 123-124.

18) Guardini R. Ethik: 184.

19) Guardini R. Der Gegensatz: 149; G. Siewerth, Der Mensch und sein Leib, Einsiedeln, 1963: 25.

20) 이경원. "로마노 구아르디니의 인간학: 인격으로서의 인간". 진교훈 외. 『오늘의 철학적 인간학』. 서울: 경문사, 1997: 77-78.

21) Scheler M. 진교훈 역.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33.

22) ibid.: 132.

본질매개(Wesensmedium)²³⁾라고 표현하였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인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1908-1961)는 우리가 만년필을 찾을 때, 그것을 찾고 있는 손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몸은 대상과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듯이 몸은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찾는 행위에 앞서 이미 벌써 전제되어 있다. 몸은 모든 지각과 모든 인식과 모든 의욕과 모든 행위의 기반이다. 우리는 육체 생명을 통해서 지각하며 사색하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몸은 결코 의식이나 정신을 단지 표현하기만 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살아 있는 표현 현상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과 의식은 서로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애매하게 통일되어 있다고 말한다.²⁴⁾

인간의 육체는 결코 도구가 아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 전체로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는 결코 소유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예를 들면, 필기구)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는 있으나, 내 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가 곧 나이다.’라는 명제가 가능하다. 누가 나의 몸을 공격할 때 그것은 나의 몸에 대한 공격에 머물지 않는다. 그 공격은 나의 몸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²⁵⁾

한편 가치론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가치는 위계를 가지지만, 하위 가치가 상위 가치의 단순한 수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 실현을 위한 전제이다. 독일의 현대 철학자 하르트만(N. Hartmann; 1882-1950)의 설명²⁶⁾을 살펴보자. 그는 가치의 순위를 ‘향락가치 → 재화가치 → 생명가치 → 윤리적 가치’로 나타내면서도, ‘윤리적 가치인 선(善)을 보다 높은 가치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낮은 가치에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 낮은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가치이며,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보다 높은 가치의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낮은 가치들은,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보다 높은 가치들을 위한 기초요 조건들’이며, ‘낮은 가치들이 허물어져 버리면, 높은 가치들도 몰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르트만은 ‘보다 높은 가치들만 우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낮은 가치들도 우대하라고 요청한다.’ ‘낮은 가치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명령은 높은 가치를 실현시키라는 요청과 똑같이 중요’하며, ‘낮은 가치에다 우선권을 인정해 주려는 경향은 높은 가치에다 우선권을 주려는 경향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한다.’고 그는 말한다.

인격주의 사상가와 가치론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육체 생명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정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요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 생명에 기본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극대화하여 인간의 육체 생명에만 기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시 인간의 전체성에 어긋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면, 간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 생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것에서 출발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영혼까지 돌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23) Pöltner G. Grundkurs Medizin-Ethik. Wien: Facultas, 2002: 70.

24) Merleau-Ponty, Phänomenologie der Wahrnehmung. 1945; 진교훈. 의학적 인간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02-302 참조.

25) Pöltner G. Achtung der Würde und Schutz von Interessen. J. Bonelli(Hg.). Medizin und Ethik. Wien.New York: Springer-Verlag, 1992: 30-31 참조.

26) Hartmann N.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1949; 강성위 역. 철학의 흐름과 문제들. 서울: 서광사, 1988: 217-225 참조.

지금까지 살펴 본 인격주의의 인간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의료윤리 및 간호윤리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관계를 히프크라테스적 모델, 계약 모델, 동반자 모델²⁷⁾ 또는 기술자적 모델, 성직자적 모델, 협조자적 모델, 상호계약 모델로²⁸⁾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인격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의료인과 환자 관계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환자의 자율성도 강조하고 중시할 수 있다. 반면 환자는 질병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필트너는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근원적 상황을 ‘어려움과 도움의 상황’(Die Situation von Not und Hilfe)²⁹⁾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움의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율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 비교적 대등한 상황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차등의 상황 나아가 심신의 질병이라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자율성 강조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자율의 윤리학은 사회구성원 모두 특히 환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간호 윤리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³⁰⁾

따라서 ‘어려움과 도움’이라는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근원적 상황에서는 ‘돌봄의 품성’이 요청된다. 의료인의 최고 계명은 ‘환자에게 최선의 것을 행하라’(salus aegroti suprema lex)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자를 인격 존재로 대우[존중]해야 하며, 환자를 책임감 있게 돌보아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환자의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은 환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점점 더 대형화, 표준화, 효율화 되어 가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³¹⁾

0 환자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가치: 환대, 배려, 책임, 정직, 자존

한편 환자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윤리적 가치를 열거해 볼 수 있다. 우선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환대(歡待, hospitality)와 배려(caring)를, 간호전문직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responsibility)과 정직(honest)을, 그리고 단순 기능인이 아니라 한 인간 전체로서 간호자의 자존(self-esteem)과 자기실현(self-realization, “너 자신이 되어라”)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논의는 이번 발표에서는 줄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발표주제가 ‘간호에서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므로 간호에서 중시되는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물음에 관한 교육학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27) Wolff HP. Arzt und Patient. in: H. M. Sass(Hg.). Medizin und Ethik. Stuttgart: Reclam, 1989: 184-187.

28) Veatch R. Model for Ethical Medicine in a Revolutionary Age. Hasting Center Report, Vol. 2. June 1972: 5-7; 비치의 모델 구분은,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바오로딸, 2003: 138-140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9) Pöltner G. Grundkurs Medizin-Ethik: 89.

30) Eibach U. Menschenwürde an den Grenzen des Lebens. Neukirchener Verlagshaus, 2000: 24.

31)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pp. 229-231.

0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함양할 것인가)?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물음은 ‘윤리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과연 타당한가? 만약 윤리적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면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물음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따라서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물음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윤리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물음에 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³²⁾

앞서 제시한 간호에서 중요한 윤리적 가치, 예를 들면 존중, 책임, 배려 등을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가들은 덕(virtue) 또는 탁월성(excellence)으로 번역되는 아레테(aret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논의하였다. 플라톤(B.C. 427-B.C. 347)의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문제의식을 보면, 그들은 아레테를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물음을 탐구하였다.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³³⁾은 소크라테스에게 메논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덕(arete)³⁴⁾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르쳐질 수는 없고, 수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련에 의해서나 배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것입니까?(70a)

메논의 이 물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 ② 덕은 가르쳐질 수는 없고 수련(修鍊)될 수 있는 것인가?
- ③ 덕은 가르침이나 수련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일단 ‘덕이 앎³⁵⁾이라면 가르쳐질 수 있다’(87c-89c)고 답한다. 그런데 이 때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은 상기(想起, recollection)될 수 있다³⁶⁾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배우는 자가 미리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잊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잊고 있음을 깨우쳐서 미리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³⁷⁾

메논과 소크라테스의 논의에서 ‘덕’을 ‘윤리적 가치’으로 치환하면, 메논의 물음과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재진술할 수 있다.

32) 홍석영, “인성 개념 및 인성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고찰”,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중등교육연구』 제25집, 2013, pp. 191-195 참조.

33) 다음 번역을 참고하였다. Platon, 이상인 역, 『메논』 (서울: 이제이북스, 2009), 70a.

34) 참고한 번역에서는 arete를 ‘탁월성’으로 번역하였으나, 간호 윤리 교육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덕’으로 고쳤다. 그리스어 arete는 덕 또는 탁월성으로 번역되고 있다.

35) 소크라테스는 ‘앎’에 해당하는 단어로 episteme, phronesis, nous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앎’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36) “탐구와 배움은 결국 모두 상기니까 말일세”(81d)

37)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물음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전개하면서, 덕의 교사도 학생도 없다면 그것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89e-96c), 덕이 올바른 확신이라면 신적인 섭리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97b-100c)고 말한다. 따라서 『메논』에서 소크라테스가 덕은 앎이며 그러므로 가르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리적 가치를 가르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르쳐질 수는 없고, 수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련에 의해서나 배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윤리적 가치가 얇이라면 가르쳐질 수 있다.³⁸⁾ 이때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은 상기(想起)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아레테)을 윤리적 가치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크라테스의 대답으로부터 윤리적 가치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지금 잊고 있는 것을 기억해 내도록[상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의견은 윤리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물음에 일정한 답의 방향을 제시한다. 최소한 가르침을 상기로 이해한다면, 윤리적 가치는 타고나는 면과 길러지는 면이 모두 있다고 할 수 있다. 타고난 것이 없으면 길러질 수도 없고, 타고났어도 길러지지 않는다면 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고난 것을 길러낸다는 관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적인 덕과 품성의 덕으로 대별한다.³⁹⁾ 그는 소피아, 누스(nous),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테크네는 지적인 덕으로, 용기, 절제, 온화, 관후, 친애 등은 품성의 덕으로 분류하였다. 지적인 덕은 인간의 이성과 관련한 덕이고, 품성의 덕은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덕이다. 그는 지적인 덕의 기원과 성장은 주로 가르침[교육]에 있으며, 품성의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고 말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의 덕과 인간 본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중략)…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⁴⁰⁾

즉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과 습관화를 연결 지어 설명함으로써 타고남과 길러냄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참고하여 간호에서 윤리적 가치의 교육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간호에서 윤리적 가치 교육은 없던 성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보다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성품을 찾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에서 윤리적 가치 교육은 타고난 성품의 함양(涵養)⁴¹⁾이라고 할 수 있다.

38) 인성이 얇이라는 주장에는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될 듯하다. 왜냐하면 인성은 보통 지성과 대비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성이 과연 얇과 대립되는 정반대의 것인지 아니면 인성의 핵심은 결국 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39) Aristoteles, *Nicomachean Ethics*, 1103a14이하. 번역은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16)을 주로 참조하였다.

40) Aristoteles, *Nicomachean Ethics*, 1103a24-1103b3.

이런 관점에서 현대 미국의 통합적 인성교육론자인 리코나(T. Lickona, 1943년생)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⁴²⁾ 그는 콜버그의 인지적 도덕 발달이론과 같은 지성 중심의 도덕 교육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도덕적으로 키우는 데(즉, 도덕적으로 행위 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교육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정·행에 모두 관심을 가지는 통합적 인성교육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성의 구성 요소를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으로 구별하고, 좋은 인성이란 선을 알고, 선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것, 즉 사고·감정·행동 습관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인성의 하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⁴³⁾

가. 도덕적 인지(moral knowing)

- ① 도덕적 인식(moral awareness): 주어진 상황 속에 내재된 도덕적 문제 및 도덕적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
- ② 도덕적 가치 알기(knowing moral values):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 온 도덕적 유산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알고, 또 그것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능력
- ③ 입장 채택(perspective-taking):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취해 보는 능력
- ④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도덕적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
- ⑤ 의사 결정(decision-making): 반성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
- ⑥ 도덕적 자기 지식(moral self-knowledge):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

나. 도덕적 감정(moral feeling)

- ① 양심(conscience):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
- ② 자존감(self-esteem):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③ 감정 이입(empathy): 입장 채택의 감정적 측면으로서 인간의 공통된 휴머니티에 반응하는 능력
- ④ 선을 사랑하는 것(loving the good): 선을 좋아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 ⑤ 자아 통제(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
- ⑥ 겸양(humility): 도덕적 자기 지식의 감정적 측면으로서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개방성과 자신의 실패를 교정하고자 행동하려는 의지

41)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인용일 2013. 10. 31.

42) 리코나의 교육 이론을 일반적으로 ‘인격 교육’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그가 사용하는 개념이 ‘character’ 이므로, 그의 교육 이론을 ‘인성 교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성 교육과 관련한 그의 대표 저서는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1992)이며, 이 책은 국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박장호·추병완 역, 『인격교육론』, (서울: 백의, 1998). 이 부분은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4), pp. 150-15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3)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교육과학사, 2004, pp. 151

다. 도덕적 행동(moral action)

- ① 능력(competence):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율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
- ② 의지(will): 도덕적 용기의 핵심 요소로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
- ③ 습관(habit):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리코나는 인성교육을 덕을 계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학교는 특히 존중(respect)과 책임(responsibility)의 덕들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코나가 강조한 존중과 책임은 간호에서도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리코나는 학생들에게 존중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길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간호에서의 윤리적 가치 교육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교사⁴⁴⁾는 배려의 제공자, 역할 모델, 훌륭한 스승으로 활동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좋은 귀감이 되며, 친사회적인 행동들을 지지해주고, 유해한 행동들을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 → 간호 윤리 교육자는 배려의 제공자, 역할 모델,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스승으로 활동해야 한다. 다중지능이론을 제시한 미국의 심리학자 Howard E. Gardner(1943년생)는 ‘학생들은 어른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른의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들 주변에 ‘좋은 어른’이 많이 있도록 해 주라’⁴⁵⁾고 하였다.
2. 교사는 교실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 상호 간에 잘 알도록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 주도록, 그리고 집단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성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간호 윤리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나아가 병원이 도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 줌으로써 자신이 병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3. 교사는 도덕적 규율을 실행해야 한다. 교사는 도덕적 추론, 규칙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존중을 촉진하고 강화해주기 위한 기회로서 규칙을 제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4. 교사는 민주적인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교실이라는 장소가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을 협동적인 의사결정과 공유된 책임에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덕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학, 역사, 과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윤리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활용해야 한다. → 간호 윤리 교육에서 인문학적 내용을 풍부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교사는 협동 학습을 활용해야 한다. 협동 학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입장 채택, 공동 목표를 향해 협동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협동 학습 경험 그 자체가 주는 협동 경험은 향후 간호사로 활동할 때 매우 중요하다.

44) ‘교사’를 ‘간호윤리교육자’로 바꾸어 읽으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5) “문명, 그 길을 묻다-세계 지성과의 대화(3): 하워드 가드너 미국 하버드대 교수”, 경향신문, 2014년 1월 27일.

7. 교사는 '직무에 대한 양심'(conscience of craft)을 발달시켜야 한다. 학습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며, 탁월성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8. 교사는 도덕적인 반성을 권장해야 한다. 독서, 조사 연구, 작문, 토론, 대립 토의 등을 통하여 도덕적 사고와 사려 깊은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9. 교사는 갈등 해결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공정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도덕적 태도와 기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0. 교사는 교실을 넘어선 배려 행위를 촉진해야 한다. 이타적인 행동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사용하고, 모든 학년에서 봉사 활동 학습에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1. 교사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도덕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교실에서 배운 가치들을 지지해 주고 확대시켜 주는 전체적인 도덕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지도력, 학교의 규율, 학교 차원의 공동체 의식, 민주적인 학생 자치, 성인들 사이의 도덕적 공동체, 도덕적 관심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마련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교사는 학부모와 공동체를 인성 교육의 중요한 협력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도덕 교사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 훌륭한 가치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권면하는 일, 핵심적 덕목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공동체(직장, 지방자치정부, 종교공동체, 대중매체 등)의 도움을 모색하는 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0 마치며

지금까지 간호에서 중시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그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인격주의와 인성교육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 한다면, 간호 윤리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을 존중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치 및 윤리 교육은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가치 및 윤리 교육은 어떤 기능의 훈련(training)과 구별된다. 환자의 존엄성과 함께 학습자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간호 윤리 교육의 어려움이자 매력이라 할 수 있다.